슬픔과 분노의 함성을 가열찬 투쟁으로

제5기 전대협 출범식을 보고

제5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부산대에서 출범식을 갖고 힘찬 출범을 선포했다.

이번 출범식에서 전대협은 故 김귀정열사 폭력살인, 지자제 광역선거 등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과 투쟁방향을 제시했다.

김귀정양 폭력살인에 대해 전대협은 '현재 폭압적으로 자행되는 공안통치가 노태우 퇴진, 민자당 해체 없이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태우 퇴진, 민자당 해체투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전개할 것과 이를 위해 안기부와 기무사등 폭압기구와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공안통치의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고 정원식 신임 총리서리 등 공안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밝혔다.

전대협은 또 오는 8일 '폭력살인 민생파탄 민자당 심판과 민주승리를 위한 6월항쟁계승 국민대회'(가칭)로 힘을 집중하고, '공안통치 분쇄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과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민자당 파산 선고 실천주간을 설정해 대대적인 노태우정권 퇴진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출범식 사수결의대회 및 전야제를 시작으로 1일 오후 3시30분부터 '제2기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반미투쟁 선포식'과 많은 비가 내리는 과정에도 '제5기 전대협 출범식'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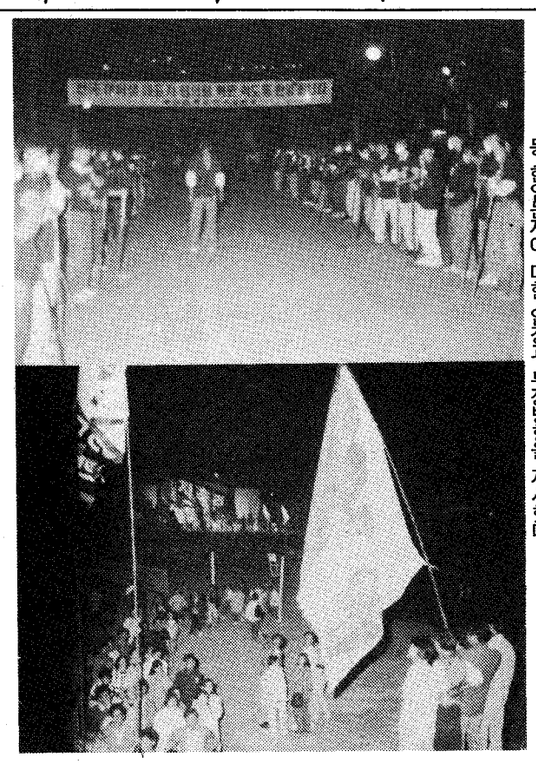
안영만(경북대 총학생회장)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김종식(한양대 총학생회장)전대협 의장은 "지난 5월은 슬픔과 분노의 함성이 넘친 달이었지만 그때의 가열찬 투쟁이 6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자리가 축제장이 아닌 노태우퇴진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철수(본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제2기 학추위 위원장은 학추위 발족식에서 "북한의 이천여만 형제를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면 이자리가 조국통일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협 학추위는 지난 27일 북한 외교부가 발표한 담화에 대해 그 배경은 △노태우정권이 유엔가입 신청서를 내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적 절박성과 △국제사회에서 유엔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만의 유엔단독가입이 초래할 결과를 좌시할 수 없는데다 △북한의 유엔가입으로 객관적 난국이 일시적으로 초래되더라도 통일주체역량 성장은 분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전대협 백만청년학도가 △당면 반미·반노태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투쟁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굳건히 견지하며 이번 투쟁을 성과리에 종결할 것과 △반미투쟁의 대중적 확산은 7, 8월 조국통일투쟁에 있어서 투쟁의 구심을 확고히 세우고 쵸통투쟁에 대중적 진출을 보장한다는 것 △유엔 분리가입이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끈질기게 선전하면서 유엔 단일의석 가입을 촉구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각 지구대협별로 모인 학생들은 1일 오전 9시 30분경 '이철규·이내창 열사 영혼 결연식'을 가졌으며 2일 오전 11시부터 '故 박창수열사 살인주범 안기부해체와 故 박창수열사 살인주범 안기부해체와 故 김귀정열사 폭력살인 공안통치 종식과 노태우퇴진을 위한 전국 노동자·학생 결의대회'를 갖고 당면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반면 출범식이 열린 부산대내 곳곳에는 '민생파탄 비리주범 노태우정권 타도와 강고한 노학연대를 위한 학생특별위원회'등 투쟁체 명의의 전대협 출범식 비판 대자보가 나붙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학추위 사업등 통일투쟁이 당면투쟁으로 무의미하며 모든 역량을 노태우정권 타도전선에 결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계속적인 가두시위와 함께 민중연대투쟁을 벌이자고 제안하며 독자적인 집회를 갖기도 했다.



◇전대협은 故 김귀정 열사 폭력살인, 지자제 광역선거 등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과 투쟁방향을 제시했다

◇전대협은 전국총학생회 연합건설을 91년도 총회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학추위 발족식, 노학연대 집회 개최로 열기고조

일부선 조통투쟁 비판하며 지속적 정권퇴진 주장

한편 용인·성남지구총학생회연합 소속 8백여명의 학생들이 31일 오후4시 충북대로 집결, 인근에 위치한 청주여자미평교도소를 향해 '임수경 전대협 평축대표 구출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시위에서 본교 홍성규(중문·4), 양인수(기계·3)외 5명이 경찰의 강경진압에 의해 부상당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단체접견 허용 등을 요구했으며, 오미연(본교 수원캠퍼스 총여학생회장) 학추위 장은 이날 구출투쟁이 91년 조국통일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라고 말했다.

〈송보영記者〉

죄인 될 수 없는 이 시대 양심수

—석방양심수 농성을 보며

민주세력 얽어매는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정부의 '5·25 특별가석방조치'로 석방된 양심수와 그 가족, 강제징집철폐를 위한 대책위, 윤석양 후원사업회는 지난 5월29일부터 31일까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며 농성했다.

범국민대책회의가 있는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이 농성에서 석방된 양심수와 그 관계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민자당측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가보안법 개정안 철회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 특히 수십년간 갇혀있는 초장기수들을 먼저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29일 '5·25 양심수 석방자 대표단'은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 사항은 23일 만기출소하게 될 두 사람을 미리 가석방하고서 5·25석방자 명단에 포함시켜 석방자수를 늘려 보이려는 의도에 대한 문제 제기, 조국통일과 양심수 양산을 막기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견해 요청 등이다.

석방된 양심수측은 이번 석방조치로 출감된 양심수는 74명으로 현재 수감중인 1천3백여명의 양심수의 6%에 지나지 않는데다 석방된 25명의 시국사범들의 만기 출소가 거의 올해 상반기라는 점을 들면서 이번 조처가 선전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 장기수의 석방과 민주세력들을 옭아매려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5·25양심수 특별석방조치'는 지난 5월11일 민자당측이 일방 통과시킨 국보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시국수습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후속조치로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도처에서 일고 있다. 일부에선 '6공화국은 수서비리, 페놀유입, 의원내유등 부패와 강경대치사이후 폭발된 현정권의 실정으로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런 시대상황에서 이시대의 양심수는 결코 죄인일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특집부〉

◇현장보도…김귀정양 사망 경위

폭력정권, 또 하나의 살인

백주대낮에 폭력경찰에 의해 숨진 故.강경대 열사의 죽음이 있은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지금 또다시 김귀정(성균관대 불문·3)양의 사망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김귀정양은 25일 범국민대책회의에서 주최한 '폭력살인 민생파탄 노태우정권 퇴진 제3차 국민대회'참석 도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초강경진압에 의해 사망했다.

25일 김귀정양 사망 당시 상황을 보면 오후 5시30분경 3만여명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범국민대책회의에서 주최한 '폭력살인 민생파탄 노태우정권 퇴진 제3차국민대회'에 참가 시위를 전개하였다.

5시37분경 경찰의 명동방면, 퇴계로6가, 스카라 극장방면에서 백골단과 페퍼포그를 앞세워 시위대를 공격하였다. 이때 경찰의 강경진압에 밀린 시위대는 주변의 골목으로 피하였고 이 과정에서 명동쪽으로 가던 2백여명의 시위대가 폭 1.5m의 샛길에 몰렸으며, 이 골목에 경찰은 최루탄과 사과탄을 난사하였다. 이때 20여명의 학생이 주차중이던 차에 걸려 넘어졌다. 당시를 증언한 김지훈(공주사대 국민윤리·4)군은 "현장에서 여학우 한명이 못일어나 도와주려다 백골단의 구타에 못이겨 포기하였고, 잠시후 전경이 물러간후 4~5명과 함께 김양을 백병원 응급실로 옮겼다"고 말했다.

8시40분 전경 5천여명에 의해 백병원이 봉쇄 당하였으며, 이후 백병원 진입이 어려워 동국대학교로 집결하였다.

범국민대책회의는 하오 9시 1차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20여명의 숫자는 넘어져 압사하기에 적은 인원이며,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양의 죽음으로 성균관대학교는 28일 금잔디 광장에서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학생들은 범성균인 결의를 밝히고, 충무로 사건현장으로 가 규탄집회를 가졌다. 집회를 마친 후 학생들은 백병원과 명동성당의 범국민대책회의를 방문, 백병원과 명동성당사이 도로에서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성균관대학은 지난달 29일을 대국민 선전의 날로 정하고 각종 추모공연과 지하철·가두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이번 김양의 죽음에 대해 제도언론에서는 단순히 압사사건이냐 아니면 질식사한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바로 폭력적이며, 공격적인 시위진압 방법이 강열사 사건이후로도 전혀 변하지 않았음과 노재봉 전 총리에서 정원식총리서리로 바뀐 공안내각의 개편이 기만적인 것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범성균인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입장'발표를 통해 노정권퇴진과 폭력살인의 직접 책임자인 내무부장관 이하의 처벌, 내각의 총사퇴, 그리고 언론의 은폐조작 등을 중단할 것을 밝혔으며, 범국민 결의대회에서는 이수호 집행위원장이 나와 "김귀정 열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것입니다. 다시 힘을 모아 노정권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합시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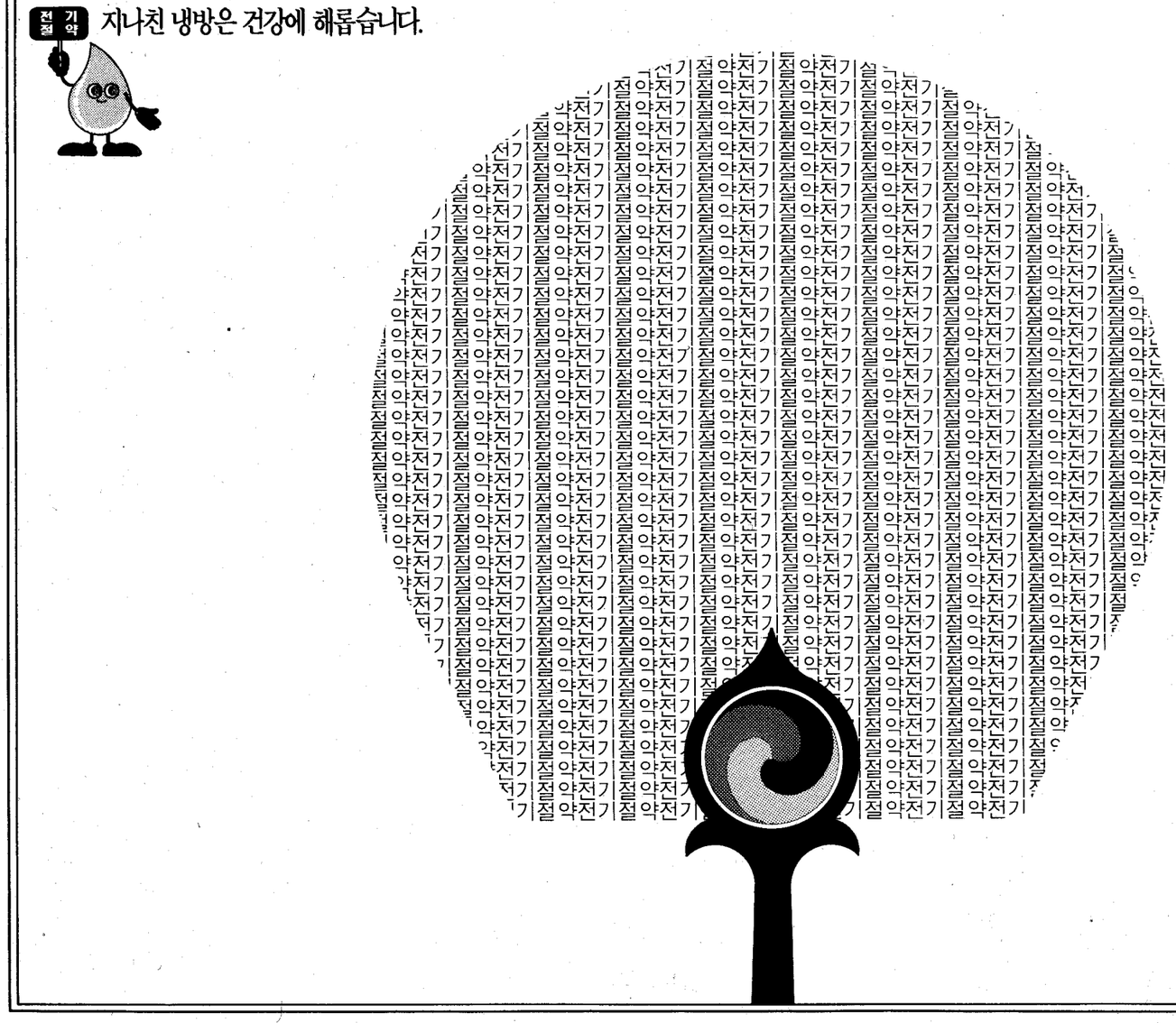
〈이지환 記者〉

◇김양 사망소식 이후 명동성당과 백병원을 중심으로 한 가두 선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끼몰이식 강경진압이 화근

공안내각 개편의 기만성 입증

전기절약 지나친 냉방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전기절약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

혼자서는 힘든일 그러나 함께 하면 쉬운일!

우리의 생활수준 향상과 전기과소비풍조로
전력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공급 예비율의 저하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전기절약을 위한 전국민의 노력과
한전의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하나가 되어야 안정된 전력공급은 가능해집니다.
내일을 위한 전기절약.
우리모두 다같이 노력합시다.

전기절약의 지혜

에어콘 : 낮시간(오후 1시~오후 3시) 사용을 자제합시다.
선풍기 : 장시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조 명 : 불필요한 전등은 끕시다.
냉장고 : 문 여닫는 횟수를 줄입시다
세탁기 :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합시다.
T V : 원하는 프로그램만 시청합시다.

한국전력공사